숲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 캠프 운영

국립수목원, 성인 남녀 15명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과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팀은 '숲을 이용한 건강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숲 치유 캠프를 실시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국립수목원에서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는 성인 남여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캠프는 수목원의 아름다운 숲과 함께 지내는 동안 참여자들의 생리적인 변화와 기분, 그리고 우울감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국립수목원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했다.

'welling-being'과 'natural-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과 건강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숲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믿어왔지만 숲이 어떠한 기능에 의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립수목원과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팀은 숲의 건강 기능을 밝혀내고, 숲을 이용한 산림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울증세를 가지고 있으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군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정신과 전문의 사의 검사와 면담에 의해 성인 남녀 15명이 선발했다. 이들은 2박3일 간의 캠프기간 동안 국립수목원에서 숲과 함께 친해지기, 숲과 교류하기, 숲에서 나를 되돌아보기, 숲에서 나의 비전 찾기, 감정 나누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심리적인 변화와 생리기능 등을 검진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국립수목원과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팀은 '숲을 이용한 건강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숲 치유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숲 치유 캠프의 목적은 숲과 함께 지내는 경험이 기초적으로 참여자의 혈압, 맥박, 심전도, 뇌파, 타액의 호르몬 등의 생리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그 후 궁극적으로 숲 치유 캠프를 통해 참여자의 우울증 수준과 행복감,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3년에 거쳐 진행될 본 연구는 숲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활용한 대체 임상치료법의 개발과 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숲을 이용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 특히 노인, 장애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 등의 특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지주이용 간판 설치법 바뀐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나와

포천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포천시는 도시 이외 지역에서 지주이용 간판 설치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이외 지역에서 지주 이용 간판 설치와 관련해 기존에는 간판 개수에 관한 규정없이 '해당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나타나 있으나, 개정안에는 1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 이용 간판의 수를 상가 수에 관계없이 1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일괄 5m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건물내 상가 수에 따라 1개일 경우, 2.5m 이내, 2개일 경우 3m 이내, 그리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5m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 이용 간판 1면의 면적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건물의 상가수가 1개일 경우 2.5㎡, 2개일 경우 3㎡, 3개 이상일 경우 3.5㎡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고물 면적의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역시 건물의 상가 수에 따라 1개일 경우 10㎡, 2개일 경우 12㎡, 3개 이상일 경우 1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이같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광고물부서(☎ 031-538-2476)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한 여성 10년간 성폭행한 사범 구속

성관계 후 동영상 찍어 협박도 일삼아

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범이 지난 24일 경찰에 잡혀 결국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의하면 구속 수감된 오모씨(38세, 미혼, 포천시 일동면)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3시경 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소유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거세게 반항하는 A모씨(34세, 여)를 뺨을 때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흉기로 음부 찌른 후 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피해를 당한 A모씨는 전치 3주의 '회음부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상태이며, 정신과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구속 수감된 오모씨 96년7월 알게된 A모씨를 알게 된 이후 강간하고, 캠코더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해, A모씨가 성행위를 거절할 경우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모씨는 오모씨의 강압에 못이겨 10년 동안 성관계를 맺어 왔으며, 남편과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

이번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결한 포천경찰서 신진수 형사는 "일부 나도는 소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파렴치 사범을 검거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진수 형사는 올해 나이 38세로 경찰에 입문한 후 10년 동안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 환기

포천시, 민방위 포스터·수필 공모

포천시가 시민들에게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재난대비 조직으로서 민방위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주제로 하는 포스터와 수필을 현상 공모한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포스터'는 생활민방위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민방위 활동상을 알려 국민에게 친근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수필'은 민방위 활동, 안전관리 사례, 재난 대처 경험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된다. 포스터와 수필에 동시에 응모할 수도 있다.

포스터는 2절지 이내 크기여야 하고 지질 및 색도 제한은 없다. 수필은 200자 원고지 18매 또는 A4용지 4매(12포인트, 줄간격 160%) 가량이면 된다.

접수는 6월 20일까지며 포천시청 민방위부서나 각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포스터와 수필 각 부문에 세 작품씩 총 18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또 이 가운데 포스터와 수필 4점씩을 경기도 공모전에 추천하게 된다.

시상식은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 기념일인 9월 22일 열릴 예정이며, 우수 포스터는 전국 관공서 등에 게시되고, 수필은 '중앙민방위'지와 재난관련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민방위부서(☎031-538-2163)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재활교육 실시

포천시 보건소, '뇌졸중 자조 관리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가 4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뇌졸중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조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이의 일환으로 경복대학(학장 황병기)과 협력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실습실에서 양경희 교수의 지도로 자원봉사학생 25명과 장애인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다음달 12일에도 이같은 프로그램이 한차례 더 마련된다.

이 사업은 포천시 보건소가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경기북부지역 거점 보건소로 지정되면서 기획된 것으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경복대학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관학협력서를 교환한 바 있다.

포천시 보건소의 CBR 자문교수인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는 '자조 관리교실'이 내실있게 잘 짜여져 장애인들의 재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참여해 재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수화교실' 운영

포천시 관인면사무소

가 청각장애인들과 가족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주간 30시간 과정의 무료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5월 3일 관인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강돼 7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2시간씩 열리는 수화교실에는, (사)한국농아인 경기도협의회 포천시지부의 농통역사와 수화통역사가 1명씩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수화교실은 "언제나 함께하는 관인, Always with you, Gwanin!" 구현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우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총 15명의 장애인와 가족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각 마을에 지속적인 홍보가 실시되고 있어 수강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료 등 특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관인면 시책추진비로 집행된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시 군내면사무소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모내기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새참을 전달하고 일손을 도와 눈길을 끌었다.

모내기 현장 '새참 나르기' 눈길!

군내면사무소 모내기 일손돕기에 앞장서

포천시 군내면사무소가 모내기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새참을 전달하고 일손을 도와 눈길을 끌었다. 군내면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농사 현장에서 모내기를 체험하고 농민들과 막걸리와 음료수 등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각 마을별 담당공무원들은 주로 이장 농가, 그리고 면장은 5만 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를 위해 새참을 날라주고 모내기를 도왔다.

군내면 유교리 김 모 씨는 30여 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지만 모내기 때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와 일손을 돕고 함께 새참을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군내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새참 나르기를 통해 점차 잊혀져 가는 농촌의 정감어린 모습이 재현된 것은 물론,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공직자와 주민간 유대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시, '좋은아버지학교' 운영

포천시가 아버지의 정체성 회복과 새로운 가정문화창출을 위해 시청 및 유관기관 직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좋은 아버지학교'를 개최한다.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열리는 이번 '좋은아버지학교'에는 두란노아버지학교 교육팀장이자 경민대학 평생교육원장인 장상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와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포천시는 가정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참된 아버지상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가족과의 대화를 회복하며 친밀감을 높이는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追 동농 이해조 선생 추도식 및 기념사업회 발기대회 慕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발기문

동농 이해조 문학과 계몽 활동에 대한 재조명은 한민족의 정신사적 및 문학 예술적 성취를 새롭게 평가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동안 동농은 최초의 신소설 작가라는 이름을 얻어 온 국초 이인직을 능가하는 대표적 신소설 작가임이 여러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규명된 바 있다. 그는 신소설을 전대의 소설로부터 한 걸음 진전시킨 탁월한 문학예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애국 계몽기에 독립 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신문기자와 잡지 편집인으로서 꺼져 가는 조국의 명운을 되살려 근대화로 이끌고자 한 선각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이해조 문학회는『자유종』을 포함한 40 여편에 달하는 소설연구를 통해, 동농이 신소설을 개척한 한국문학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동농의 업적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면서 우리는 그 분이 이 고장에 나서 이 고장에 묻힌 향토의 문화예술인이라는 사실에 뿌듯한 자긍과 자부를 갖는다. 아울러, 우리는 동농이 지금까지 개화기의 한 소설가로만 알려지고 그를 방치하다시피 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농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단순히 한 시대의 소설가를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사회의 정신적 뿌리를 복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동농 기념사업에 대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로, 지금 우리사회는 마치 정체를 알 수 없이 깊은 함정에 빠진 듯한 집단 무기력증과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물신지배의 몰가치적 현실을 차분히 되짚어 볼 시점에 애국 계몽기의 선각자인 동농

■추 도 식 : 2006년 6월 6일 오전11시 동농 묘소
■발기대회 : 동일 12시 경복대학 본관 3층 세미나실
■주 최 : 이해조문학회
■후 원 : 포천시, 포천교육청,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포천신문사

이해조의 통찰력 깊은 삶에 대한 연구는 정신적인 방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신소설의 창시자로서의 동농의 재조명은 식민사관에 의해 소외된 정신사적 근간을 복원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남존여비와 적서차별 등 봉건적 폐습을 타파한 동농의 애국 계몽정신의 재평가는 21세기의 주요 화두인 중심문화와 주변문화,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셋째로, 동농 문학의 재조명은 포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왕족 출신인 동농 이해조가 민중의 애달픈 삶을 고민하면서 조국의 새로운 비전을 열망한 점을 살펴 보면 그의 작가 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는 포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다.

넷째로, 21세기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풍습 뿐만 아니라, 인물과 풍경 등의 특수성도 경제에 활용하는 문화시대이다. 동농을 선양하는 사업은 문화가 삶의 질과 풍요를 가늠하는 이 시대에 포천을 한국의 문화예술이 꽃피는 거점도시로 발돋움시키는 중차대한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산업화하는 시대에 동농의 문학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선양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면 동농의 기념사업은 한층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동농의 문학정신 속에는 포천인의 영혼이 숨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민족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동농의 기념사업회는 한편으로는 시공을 뛰어넘어 동농의 애국 계몽정신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천을 문화와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동농 이해조 기념사업에 뜻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2006. 6. 6.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